

2024년 6월 9일

제41회 기독교대한감리회 환경선교주일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매년 6월 둘째 주일을 환경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본부 선교국
The General Board of Missions KMC

● 목차

| 환경선교주일을 맞으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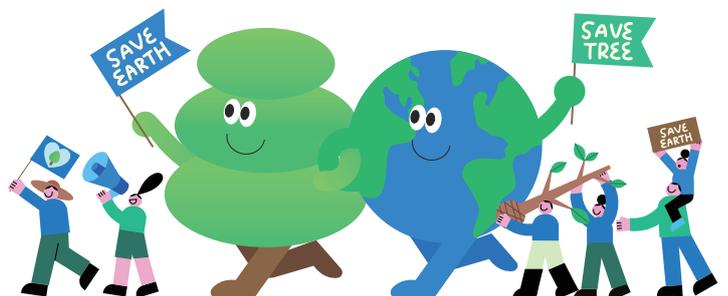
- 행함과 진실함으로, 녹색의 희망을 3
장석근 목사 선교국 환경선교위원회 위원장

| 논문 |

1. 믿음과 자유 : 기후재난 시대 생태신학의 출발점 5
선교국 환경선교위원회
2. 궁극적인 삼위일체 하나님 신비로서 창조 9
선교국 환경선교위원회

| 서평 |

- 따로 흘러 한 줄기 되어 15
정종태 목사 동부연회 춘천동지방회 들꽃교회
- 감리회 녹색교회 18



행함과 진실함으로, 녹색의 희망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1서 3:18)

장석근 목사 (선교국 환경선교위원장)

1. 환경선교주일의 역사

환경선교주일은 감리교 최완택 목사가 이끌던 한국공해문제연구소(기독교환경운동연대 전신)가 세계 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 1972. 6. 5)을 기념하여 1984년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지키면서 시작하였다. 이후 1992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환경선교위원회를 세우고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정했으며, 예배자료를 만들어 나누고 회원교단이 함께 환경주일을 지키면서, 조금씩 넓혀가기 시작했다.

지난 5월 21일에는 제41회 “2024년 환경주일 연합예배”를 이화대학교교회에서 드렸다. 이 예배는 생명문화위원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한국교회환경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감리회를 비롯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교회가 함께 했다.

감리회 “환경선교주일”은 1990년 6월 선교국 사회선교부에서 조직되어 교단 차원의 환경운동으로 이뤄졌고, 1992년부터 6월 둘째 주일을 “환경선교주일”로 지켜오고 있다. 첫째 주일은 이미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감리회에서는 2022년 10월 제35차 총회에서 탄소중립선언문을 채택하였고, 2040년까지 감리교회가 쓰는 모든 에너지 및 물자에 대한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리고 총회와 연회 안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기후특별위원회는 현재 준비 중이며, 올해는 연회마다 다르지만 저마다의 다양한 방식으로 녹색연회를 개최하였다.

2. 환경선교주일, 감리교인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감리교인은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가정, 사회, 국가, 세계 그리고 생태적 환경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바이다.”(<교리와 장정>(2023) 제1편 제2장 제4절 【65】 사회신경(1997년))

그 첫 번째 선언이 “하나님의 창조와 생태계의 보존”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우주 만물을 책임 있게 보존하고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3. 환경선교주일, 우리의 행동은?

5월 22일은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이다. 이것은 이렇게 특정한 날을 지정해서 보호해야 할 만큼 생물종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다. 생물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의 평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생물 자원도 풍부해질 것이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도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우리가 먼저 생태 중심적 사고로 행동할 때, 생물다양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오순절에 예수님의 약속으로 성령을 받은 이들이 방언으로 소통하니, 사람들은 “새 술”에 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믿는 자들이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행 4:32). 이것은 성령에 취함으로써, 생겨난 새로운 공동체였다. 그렇다면 21세기에 이런 공동체가 있을까? 있다. 환경의 기준(barometer)인 새들의 삶이 그렇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고 말씀하신 뒤에, 열려하지 말고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일까? 그것은 어쩌면 ‘새처럼’ 사는 나라가 아닐까? 새는 그날그날 먹는 밥 외에, 평생에 한 벌 옷 외에 더 많이 소유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누구나 이것들을 스스로 준비하며 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말씀은 ‘새’가 되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께서 먹이고 입혀주심을 기대하며 ‘새처럼’, ‘들꽃처럼’ 살라는 말씀일 것이다. 올해 환경선교주일의 주제는 “행함과 진실함”이다.

이번 환경선교주일에는 그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진실함으로 행할 것인지 생각해 보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해설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환경선교주일자료집을 참고하기 바란다.)

믿음과 자유 :

기후재난 시대 생태신학의 출발점

■ 선교국 환경선교위원회

하나님의 진리는 시대와 장소가 변함에 따라 그에 알맞게 적용되어야 한다. 오늘날 기후재난 시대에도 이 시대에 알맞은 믿음의 표현이 있다. 우리 시대 믿음의 표현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은 이 고난의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된다. 다시 말해, 기후재난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기후재난 시대에 요청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요청해야 할 믿음의 덕목은 무엇일까?

1. 하나님의 심정: 요한복음 3장 16절

교회에서 믿음에 관해 고백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동안 교회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 중심으로 읽어왔다. 이 경우 두드러지게 보이는 내용은 “믿어야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다면, 하나님 ‘심정’으로 읽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왜 하나님이 외아들을 보내셨을까를 알리는 서두의 말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된다 —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이란 단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 말하자면 우리가 과학에서 우주(universe)라고 부르는 그런 세상만 말하는 게 아니다. 이 성서가 기록될 당시 헬레니즘 세계 사람들이 떠올리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말하자면 저 하늘 너머의 세상까지를 포함하는, 말 그대로 ‘은 세상’을 뜻하는 말이다. 하나님 사랑의 품은 우주를 뛰어넘을 정도로 넓다.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 전체를 향해 있다. 일부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사랑의 대상이다. 하지만, 이 말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출애굽기 2장 후반부의 말씀으로 주의를 돌려보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 2:23-25)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된 노예 생활 속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며 울부짖는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호소를 듣고 먼 옛날 풍요와 번영을 약속했던 사실을 기억하며 돌보신다. 종국에는 이 노예들이 모세와 더불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약속의 땅을 향한 긴 여행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풍요와 번영이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모든 인류에게 한 약속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한다. 하나님에게 ‘믿음’을 대가로 드리면 지켜지는 그런 약속 말이다.

하지만, 출애굽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 누구보다 억울하게 고통으로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있음을 깨닫게 한다. 물론 모든 인류에게 풍요와 번영이 필요하다. 다만 이 약속은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까지 지켜질 때, 비로소 모든 인류에게 지켜지는 약속일 수 있다. 인류는 역사상 한 번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다. 풍요와 번영이 언제나 불공평하게 나누어져 왔다. 그것은 지금의 기후재난 시대에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 사랑의 광대한 품은 억울하고 억눌리고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살피는 세심한 공의를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는 바울의 서신을 살펴보자. 로마서 8장의 말씀이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롬 8:19-25)

신약의 시대로 넘어오니 고통 중에 탄식하는 울부짖음이 사람의 영역을 넘어 ‘모든 피조물’로 넓혀져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의 자유는 인간만이 아닌 모든 피조물을 위한 희망이다. 이 희망을 바탕으로 바울은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하나님의 첫 열매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과 우리의 몸이 해방될 날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은 생태계 전반을 품고도 남는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계를 넘어 생태계까지 두루 뻗쳐 있다. 하나님의 공의는 생태계 전체의 억울함과 아픔을 보듬는 생태정의다. 생

태정의 위에서 인간을 위한 정의를 비로소 희망할 수 있는 것이다. 기후재난의 시대에 우리 믿음의 표현은 무엇이어야 할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이 모든 피조물을 품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도 모든 피조물을 향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 아닐까?

2. 영광스러운 자유: 요한복음 8장 15절

앞서 로마서의 본문 중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라는 말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광의 자유’란 어떤 자유일까?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한 이 물음을 통해 기후재난 시대에 절실하게 요청되는 ‘참된 믿음’의 의미를 추적해 보자.

‘자유’하면 기독교인들이 즐겨 떠올리는 본문이 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1b-32)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따라서, 이 진리를 우선 알아야 하는데, 그 방법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럼 제자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해,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된다.

그럼 어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될까? 이 본문의 바로 앞에서 예수는 스스로를 ‘빛’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한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빛’이라든가 ‘그리스도’라든가 하는 말로써 예수께서 정말 베풀려는 가르침이 무엇인가이다. 다시 말해 빛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사실 자유에 관한 이야기는 현장에서 간통죄로 잡혀 온 여자를 유대교 율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가의 문제를 푸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예수는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는 말로 답을 냈다.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비난할 구실을 찾으려고 한 ‘의지’가 실패한 순간이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예수가 스스로를 빛이라고 말하면서 시작된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즉각 비난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요 8:12-16)

이 본문에서 눈 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한 예수의 대답 부분이다. 예수는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말로 운을 뚫는다. 자기 삶과 운명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뜻이다. 예수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사용한 유대교 율법은 사람의 기준에 따라 사용되었었다. 그런 식의 접근은 예수를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의 ‘의도’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판단의 기준이 율법인 한, 이 기준은 힘을 행사하는 것이 된다. 다수가 몰려와서 비난을 하는 한, 그 비난 또한 힘을 행사하는 것이 된다. 여기에 홀로 맞서는 예수는 사람의 기준, 집단의 일방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공정한’ 힘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지적한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요 8:15a) 이 말 다음에 나올 것으로 보통 기대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말이다. 하지만 예수는 의외의 말을 한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요 8:15b) 하나님의 기준으로 힘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때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의지’도 있고 ‘힘’도 있어서 그 힘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을 때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수는 그러한 자유가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을 자유’를 제시한다. 나아가 그러한 자유를 살아낸다. 그 결과는 고난의 삶이요, 십자가 죽음이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유의 길이라면, 그 자유, 영광스러운 자유는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을 자유’이다.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을 자유를 통해서 성취된다. 우리 기독교인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는다. 기후재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가진 힘을 행사하지 않을 자유를 통해 입증된다. 힘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은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일수록, 이 자유는 더욱 요청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내신 영광스러운 자유가 가장 절박한 시절이다. 기후재난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만물의 울부짖음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만든 기준, 우리가 만든 일방적인 문명의 힘을 지금처럼 사용하지 않을 방법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생태신학을 시작하자.

궁극적인 삼위일체 하나님 신비로서 창조

■ 선교국 환경선교위원회

1. 들어가는 말

최근에 중동지역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다고 한다. “UAE 앞에 알 아인 카트 알 샤클라 지역에는 24년 만에 254mm의 비가 내려 1949년 현대적인 기후 자료를 취합한 이래 지역 내 최대 강수량기록을 갈아 치웠다.”라고 한다.¹ 중동 땅에 비가 필요하지만, 아픈 비가 내리는 것이다. 계속되는 기후 위기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를 포함한 모든 생명을 위협한다. 이와 같은 기후 위기 시대의 창조신앙은 세계의 주인이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우리는 그 세계를 보존해야 하는 책임을 위임받은 사실을 강조한다.

기독교 창조교리는 창조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라는 사실에 있다. 독일의 레온하르트 로쿠스는 기독교 창조교리의 근거를 사도신경과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찾는다. 그것은 창조 사역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참여하셨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와의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창조주 하나님이 무로부터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체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세계에 충만하게 하셨다면(창 1:22, 창 1:28), 그리스도는 이 만물의 주로서 모든 피조물과 아버지로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골 1:20) 성령은 모든 만물을 완성하는 힘이다.(요 33:4) (레온하르트 로쿠스, 조직신학 연구방법론, 427). 이와 같은 성서의 창조신앙을 통해 기독교 창조교리는 하나님 자유와 피조물의 상관관계를 설명한다. 상관관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에서 드러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함한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신앙고백이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의 결과이고, 단 하나의 피조물도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없이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세계의 창조에 대해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 계속되는 창조(creatio

¹ <https://www.news1.kr/articles/?5387458>

continua), 창조의 완성(creatio Guberntio)으로 창조신앙을 고백해 왔다. 이 고백은 창조자로서 하나님이 섭리로서 세계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며 궁극적으로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창세기는 천지창조를 소개하는 창세기 1:1-2:4a와 2:4b과 2:4와 3:24로 구성된다. 이 본문은 야훼 신앙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창조신앙이라고 불렀다. “‘창조하다’라는 동사는 근본적으로 비교될 수 없는 류(麤)의 신적 창조에 대한 언급이다. 한편으로 전혀 힘들이지 않는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다른 편으로 재료에 대한 진술과 전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무에서의 창조(Creatio nihilo)를 포함한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하다.”(폰라트, 창세기, 51)

2. 창조세계는 무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의 활동 결과이다

창세기 1:1-8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무로부터 세계를 창조하심을 증언한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과 어둠이 나뉘게 된다.(창1:4) 이와 같은 구분은 하나님이 세계의 창조자임을 의미하며 동시에 창조를 통해서 피조물의 개별적 특성들이 드러나게 하신다. 빛은 낮과 밤을 구분하는 원리이며(창1:3),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나누시고 하늘로 부르시고 땅을 드러나게 하신다(창1:8). 나뉘어 곧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환경 세계의 근간이 된다. 이는 마치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신 원리와 같다.

창세기 1:9-13은 땅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내는 창조의 장소임을 증언한다. 하나님이 하늘 아래 물을 나누시고 땅이 드러나기 시작한 후에 식물이 나기 시작한다. 11절 이하와 같이 하나님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과목을 내라고 땅에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시작한다. 폰라트가 말하듯이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인격적 창조 의지의 산물이기 때문이다.**”(폰라트, 창세기, 54) 식물들은 땅과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고,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발한다.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어 하루가 지나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빛의 활동이며 동시에 다른 피조물의 창조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의지 표현이다.

창세기 1:14-19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피조물의 참여를 증언한다. 하나님이 창조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을 피조물에게 부여하신다. 땅에 식물을 내도록 하듯이 두 광명을 창조하시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수많은 별을 만들어 땅을 비추도록 하신다. “**그들의 지배는 피조물로서 그것들이 창조자의 의지에 따라 위임받은 아주 평범한 봉사이다.**”(폰라트, 창세기, 58)

창세기 1:20-30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위한 공간으로써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음을 증언한다. 하늘과 땅은 각 생명체가 가진 특성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하나님은 “새가 날아라”라고 하시고 물에서는 큰 물고기와 모든 생물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도록(창 1:21) 하신다.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라”(창 1:22) 폰라트는 앞선 창조와 구분하여 생명체 탄생의 의미를 출산과 보존에서 찾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직접 각각의 생명체에게 창조질서를 부여하셨

기 때문이다. “생명은 명령의 말씀을 통해서만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욱 직접적인 창조행위에서 나타난 것이다. 즉 생명들은 생명을 보존하는 신적 능력을 받은 자들이며 이 능력에 힘입어 스스로 그들 나름대로의 산출 방식에 의해 받은 생명을 전승할 수 있다.”(폰라트, 창세기, 59)

창세기 1:24-30은 인간과 동물 창조에 대해 증언한다. 폰라트에 따르면, “동물의 창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셨고 그 생명은 땅에 의존되어 있다는 것이다.”(폰라트, 창세기, 59) 인간은 하나님 형상과 그의 모습에 따라 창조되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동물들을 다스려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보살필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창세기 2:1-2:3은 하나님 창조의 마지막을 의미한다. 복을 주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세계를 불완전하게 창조하지 않고 온전하고 선하게 창조했으며 완성했음을 의미한다. (폰라트, 창세기, 65) 그러나 클라우스 베스터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창조를 구원론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해해온 것을 비판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해석은 하나님의 창조행위를 무시하게 만들어왔고 파괴적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클라우스 베스터만, 창세기 주석, 36)

3. 창조세계의 파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창조세계의 구원을 이루신다

하나님 창조는 다른 피조물과 관계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치 창세기 1장이 증언하는 하나님 형상에 따른 인간의 창조와 달리, 창세기 2장은 인간이 땅과 관계있는 존재라고 증언한다. 폰라트는 이를 “신적 생명력이 질료적 신체에 들어가 인격화되고 개별화되는 것으로 이해했다.”(창세기, 81) 따라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존재이다. 창세기 2장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그린다. 하나님은 땅으로부터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아담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2:4b-25은 하나님이 인간을 땅과의 관계에서 창조하였고, 남성으로부터 여성을 창조하였음을 증언한다. 이와 같은 관계론적 해석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원적 관계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폰라트는 아담의 창조를 땅과의 근원적 관계에서 해석했다. 아담의 창조의 특수함이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신 육체에 신적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담의 육체에 불어넣으심으로 생겨난 생명-네페쉬 하야-은 인간의 본질을 근거 짓는 것이 되었다. 반면에 하와는 아담과는 다른 창조 원리를 가진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 그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짓고 하나님 형상을 상실한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난다. 죄악의 현실에 직면한 인간은 그리스도의 구원사건에 의지하게 된다(로쿠스, 477). 이는 뱀과의 관계에서 죄가 발생했고 죄의 회복과 더불어 창조의

회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골로새서 1:15 이하에 따르면, 모든 피조물보다 앞서 나신 그리스도가 근본적으로 창조세계와 관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의 머리가 되시며 모든 피조물이 거하는 장소가 되시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피조물과 화해하신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리스도 중심의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고 동시에 인간을 포함한 총체적인 의미의 하나님 화해를 의미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와와의 관계 안에 있으며 동시에 그 관계에서 그의 지체로서의 관계를 드러낸다. 이와 같은 관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만물이 그 안에 존재하고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아담의 타락 이후 창조세계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 또는 구속의 근원이요 목표를 설명하는 구절로 계속 이어진다. 창조 또는 구속은 그를 통하여 그리고 그를 위하여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다.”(슈바이처, 골로새서, 68)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화목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심으로서 그의 창조를 지속하시고 이루셨다. 조직신학자 몰트만은 <새 창조로서> 구원을 해석한다. 그리스도가 세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해방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함으로써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몰트만/이신건,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 116)

4. 기후위기 시대에 창조신앙의 회복은 인간주도의 파괴를 극복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의미한다. 창조신앙에 기반을 둔 창조신학은 곧 생태 신학의 흐름과 만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16-17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육체에 따른 판단이 사라진다. 왜냐하면, 그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은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존재는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회복된 관계를 의미하며 범신론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우리의 몸과 영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중세기에 그리스 철학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창조 인식과 달리, 개신교 신학은 창조질서의 회복을 깨닫기 시작한다(뫼만, 교의학, 217).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외향적 활동이다.”(뫼만, 교의학, 218) 점진적으로 개신교 신학은 창조세계를 하나님 섭리가 일어나는 곳으로 바라보고 세계에서 벌어지고 죄악의 현실을 극복하는 힘을 섭리로 이해한다. 여기서 보통 사람들은 그 창조세계 안에 자기 자신, 즉 인간을 포함시키지 않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자각해야만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이 좀 더 분명해질 것이다. 그래야만 창조세계에

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

조직신학자 몰트만은 생태학적 위기 속에서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창조론을 바라본다.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전통적 의미의 창조론과 달리 생태학적 위기에 직면한 세계의 관점에서 창조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한편으로, 그가 창세기 1장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땅을 정복하라”의 의미를 자연에 대한 인간의 통치권이 아니라, “평화의 지배”로 해석한다(필만, 교의학, 46). 이와 같은 주장은 지금까지 주장된 인간중심적 지배권이 비성서적임을 밝히고 있으며 공생에 대한 주장으로 읽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그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깨닫는다. 그에 따르면, “모든 신적인 활동은 그의 활동에 있어서 영적이다. 비로소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의 활동을 완성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의 창조물에게 끊임없이 영을 불어넣어 준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계속해서 우주적인 영의 에너지와 가능성들을 받음으로써 이해될 수 있으며 신적인 영의 실현된 가능성으로서 파악될 수 있다.”(몰트만,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 23)

이와 같은 신학적 인식을 통해 몰트만은 세계 안에서의 하나님 창조 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성부와 성자의 창조 활동과의 연관에서 사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했다. 삼위일체의 사권은 곧 성부, 성자, 성령의 창조세계가 완성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지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후위기는 지금까지 인간이 파괴해온 결과이고 하나님 통치의 위기이다. 따라서 몰트만은 기후위기에서 외면 되어온 창조세계의 소외문제로 시각을 돌리고 근본적으로 창조신학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하나님 창조는 근본적으로 자연 소외를 극복하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나님의 궁극적 관계를 맺게 한다.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는 동시에 그 안으로 들어간다. 그것은 세계를 존재하는 동시에 그것의 현존을 통하여 자기를 계시한다.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힘 때문에 살며 하나님이 그 안에 산다. 세계를 초월하는 하나님과 내재하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다.”(몰트만,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 29) 따라서 몰트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론을 생태학적 창조론으로 규정한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인간은 자연 세계와 결합하여 있음을 느끼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생태학적이고 우주적이고 신적 의식으로 확대됨을 경험하고 이는 자기 초월과 보존을 통해 더욱 높은 삶으로 나아간다.(몰트만,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 33)

이는 하나님의 궁극적 창조와 그의 완성에 이르게 됨을 의미한다. 몰트만은 창조와 진화의 관계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적 침투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영의 자기활동으로 이해한다. 몰트만의 생태학적 창조론이 의미하는 바는 ‘자연 속에서 고향’을 찾는 일이다. 이것은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노예와 주인의 관계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침투에서 자연을 도구화하지 않고 교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데에 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몰트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드러나는 창조세계에 대해서 말한다. 창조세계는 하나님 창조에서만 아니라, 종말론적 지평에서 자신을 드러낸다. “창조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행위의 총괄개념이라면, 창조론은 태초의 창조, 역사적 창조, 종말의 창조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몰트만,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 75) 몰트만은 이 창조론의 총체적 인식은 구원사를 향해 열려있고 영광의 나라가 도래하는 새 창조를 향해 있다고 보았다.

이는 칼 라너가 이해해 왔던 인간중심의 창조론을 넘어선다. 따라서 그는 단 하나의 신학이 있다고 주장한다. “본래적인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단 하나의 신학인 자연신학,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시화된 하나님의 은혜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신학으로서 계시신학, 피조물 전체와 철저한 새 창조를 전제하는 단 하나의 신학으로 영광의 신학이다.”(몰트만,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 80) 단 하나의 현실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권을 통해서 구체화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5. 나가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나님의 창조는 근원적 창조와 지속된 창조와 더불어 창조의 완성이 구현될 그의 궁극적 지향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 안에서 인간은 지배자일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청지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자연에 대한 앎은 곧 인간이 그를 돌보고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이다. 그러나 지금껏 파괴되어온 현실은 몰트만이 주장한 바와 같이 지배자로서 욕망을 드러낸 인간의 죄악의 결과이다. 창조세계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인간의 자기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에서 있는 창조세계를 보아야 한다.(본회퍼, 창조와 타락, 78) 그것은 인간이 창조세계의 주인일 수 없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생명과 타자의 생명을 인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태신학은 창조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창조신학이나 인간과 자연 세계에 미치는 하나님의 은총을 알리는 계시신학과 더불어 역사의 종말에 이르러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창조적 안식을 지향하는 신학이다. 생태 신학은 기후위기 시대에 창조세계를 파괴하는 어떠한 인간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오히려 창조 세계와의 연대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 창조의 현실에 참여할 수 있다. “인간은 최종적인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작품 속에 깃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것이다. 그러기에 여기에서는 그 어떤 곳으로부터의 전이가 아니라, 새 창조가 있을 뿐이다. 그것은 다윈주의와는 어떠한 상관도 없다. 인간은 진화론과 상관 없이 새로운 것, 즉 자유로운 것, 즉 하나님의 무제약적 작품이다.”(본회퍼, 창조와 타락, 82).

그러므로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창조세계를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이다.

따로 흘러 한 줄기 되어

(『꽃보다 나무로, 풀로 살아가는 교회 이야기』, 2023)

정종태 목사 (동부연회 춘천동지방회 들꽃교회)



여전히 믿음 안에서 희망을 품고 사랑을 이뤄가는 교회 이야기

꽃보다 나무로, 풀로
살아가는 교회 이야기

동부연회 “농·어·광산촌·환경선교위원회”에서 『처음처럼 새롭게 마지막처럼 간절하게』(2022)에 이어 두 번째 책 『꽃보다 나무로, 풀로 살아가는 교회 이야기』를 펴냈다. 제목이 말하듯 이 책은 교회 이야기다. 위원회가 책 표지에 소개한 것처럼 ‘여전히 믿음 안에서 희망을 품고 사랑을 이뤄가는’ 강원도 곳곳의 다양한 교회 이야기다. 위원장인 한주희 목사는 책을 펴내며 이런 바람을 적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내 목자가 되라’는 부름에 나서는 이들이 계속하여 뒤를 잇고, 동부연회에서 행복한 일들을 복되게 빚어가는 은혜 가득한 교회들이 출현하며, 그리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받들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위원회가 강원도 방방곡곡에서 찾아내 소개한 교회 이야

기는 ‘행복한 일들을 복되게 빚어가는 교회들의 출현’의 마중물인 것이다. 또한 이 이야기는 인구 감소로 교회가 비어가고, 마을이 사라지며, 기후 위기로 만물의 탄식이 깊어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땅의 교회를 이웃과 함께 빚어나가는 교회의 역사이며 기록이다.

『꽃보다 나무로, 풀로 살아가는 교회 이야기』에는 일곱 교회가 공들여 키워낸 목회, 연대, 나눔, 사랑의 숨결이 펼쳐져 있다. 이 책은 목차에서 일곱교회를 이렇게 소개한다. “교회력을 따라 신앙의 새로움을 누리는 ‘팔미교회’, 7남매 감자빵 마을과 함께하는 ‘가일교회’, 꽃과 별이 노래하는 마을에서 풀어가는 방림별곡 ‘사천교회’, 빵을 굽고 하나님 나라를 빚어가는 ‘사방교회’, 절기에배가 있는 수도원을 꿈꾸는 ‘혈동교회’, 반응이 없어도 해야 하는 일이기에 그렇게 길을 만드는 ‘귀둔교회’, 마당만 밟아도 은혜가 되는 예수의 아름다움을 그리는 삼척 ‘방주교회’.” 이 일곱교회 이야기는 음악의 변주를 닮았다. 변주는 하나의 주제 위에서 선율, 리듬, 화성을 변형해 가며 아름다운 곡을

완성해 가는 방식을 말한다. ‘팔미, 가일, 사천, 사방, 혈동, 귀둔, 방주’ 일곱교회가 연주하는 하나님 나라는 선율도, 리듬도, 화성도 다르다. 그러나 이 책은 이들 교회가 분명한 하나의 주제 위에서 있음을 이야기로 그려낸다. 일곱교회 이야기를 마주하면 이들이 주를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마주하며 목회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선교국 환경선교위원장 장석근 목사는 일곱교회 이야기를 만난 소감을 이렇게 풀어냈다. “경전으로 성경은 하나지만 처해 있는 곳은 모두 다르고, 서로가 주체임을 존중하며, 함께 연결된 구조 안에서 각자의 영역으로 풀어나가는 목회 이야기다. 하나와 여럿, 같음과 다름,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들 가운데 그 차이의 경계 속에서 제3의 길을 찾아가는 보람을 담은 이야기다.” 장석근 목사의 말처럼, 일곱교회는 그 모양도 색깔도 참 많이 다른 교회들이다. 그러나 이렇게 한 책으로 묶어 바라보니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 된 하나의 교회임을 알아보게 된다.

『꽃보다 나무로, 풀로 살아가는 교회 이야기』는 이야기의 형식을 잘 살려 만들어진 책이다. 제3의 눈을 거쳐 해석된 이야기가 아니라 당사자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려주는 이야기다. 그래서 책을 읽고 있으면 각 교회 목사, 사모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더 선명히 전달하기 위해서 각 교회 목회 현장을 담아낸 사진을 풍성히 배치했다. 이러한 잡지 형식의 편집을 통해 독자는 더욱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몇 마디 해석된 말보다 책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일곱 교회의 다양함을 풍성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이 가장 잘하는 것이 반복입니다. 낙엽이 켜켜이 쌓이면 그 밑엔 겨울에도 얼지 않아요. 생명들은 그 안에서 겨울을 이겨냅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도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쌓아놓은 것 위에 조금 더 발돋움하는 것이 성장하는 겁니다.” (팔미교회 정명성 목사, 26쪽)

“제가 시편을 그렇게 달게 읽어본 적이 없고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세속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신앙이 깊어졌어요. 신앙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고, 감당해 낼 수 없는 거죠.” (가일교회 전동훈 목사, 59쪽)

“목사님~ 눈 치우느라 고생하셨죠? 그런데요, 이 봄눈이 겨울 가뭄을 없애주고 농사짓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저는 눈을 하늘에서 내리는 아름다운 쓰레기쯤으로 여겼는데 눈이 봄을 준비하는 온 천지만물에 생기를 북돋아 주는 생수였다니! 눈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사천교회 김영현 목사, 75쪽)

“손님들이 ‘맛있다!’ 이상의 표현을 하실 때가 있어요. ‘빵이 맛있어요’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 빵 먹고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이 빵 먹고 정말 행복해요.’ 가장 맛있지는 않아도 가장 큰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커피도 내리고 빵도 만들어 드리고 있죠.” (사방교회 홍성혁 목사, 92쪽)

“저의 수준이 낮아진 게 전 너무 좋아요. 이전에는 이렇게 해도 만족이 없었는데 지금은 충분히 만족해요. 이제는 물 한 방울만으로도 갈증이 해소되죠. 목표가 낮아지고 소망이 작아지니 이렇게 편할 수 없

어요.” (혈동교회 문충기 목사, 121쪽)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듯 마을 전체가 하나인 거죠. 너와 내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이며 그 하나의 부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귀둔교회 한영종 목사, 142쪽)

“목회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테크닉도 열정도 아닌 것 같고 결국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믿음 이죠. 인내하고 기다리는데 있어서 저는 농부에게서 지혜를 배워요. 가을 빨리 되길 바란다고, 일찍 열매 맺겠다고 땡깡 부리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 것처럼 때를 따라 주시는 것을 기다리죠.” (방주교회 서승원 목사, 167쪽)

이 책의 제목처럼 들풀의 시간을 한자리에서 살아낸 이들의 말은 커다란 울림과 힘을 북돋운다. 여기 일곱 교회 목사들이 건네는 말을 찬찬히 듣고 있노라면 교회에 대한 소망이 깊은 곳에서 몽글몽글 올라온다. 그리고 당신도 그곳에서 잘하고 있다고, 우리 함께 가고 있다고 내미는 따뜻한 손길 같아 교회의 이름으로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한결 가볍게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다.

5월 22일은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이다. 생태계에서 다양성은 건강함의 중요한 척도다. 다양하다는 것은 어깨를 맞대고 서로의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다양성이 사라진 생태계는 서로를 죽이는 폭력을 낳는다.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고백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기만의 지체의 색을 또렷이 드러내고 목회의 날들을 쌓아가고 있는 교회가 더해지는 것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교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목회의 다양성을 겹겹이 쌓게 되면 그곳에서 우리의 바람을 담은 기도대로 주께서 함께하신 건강한 교회들이 출현하지 않을까? 이 기대를 품고 동부연회 “농·어·광산촌·환경 선교위원회”에서 발간한 『꽃보다 나무로, 풀로 살아가는 교회 이야기』 책 읽기를 마무리하려 한다.

감리회 녹색교회

연도	교회	목회자	소속	주 소
2006	백 석 교 회	김연진 목사	중부 일산동	일산동구 일산로135번길 6-7
2007	송 악 교 회	이종명 목사	충청 온양동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810
2008	청 파 교 회	김기석 목사	서울 중구용산	용산구 청파로 259
2009	평 화 의 교 회	박경양 목사	서울 구로	구로구 오리로20길 32
2010	받 들 교 회	김명준 목사	남부 금산	금산군 금성면 음전길 157(양전리)
	동 녘 교 회	김경환 목사	중부 고양	덕양구 토당로 52 능곡역프라자 402호
2011	동 면 교 회	박순웅 목사	동부 홍천동	홍천군 영귀미면 공작산로 473-4
2012	오 봉 교 회	장석근 목사	동부 속초북	고성군 죽왕면 왕곡마을길 13-3
2013	기 썬 교 회	류승빈 목사	경기 평택동	평택시 정암로 164(이충동)
2014	갈 산 교 회			
2015	완 대 리 교 회	여승훈 목사	삼남 진주	거창군 주상면 빼재로 1148-16
2017	광 시 송 립 교 회	이상진 목사	충청 예산	예산군 광시면 광시동로 136
2018	가재울녹색교회	양재성 목사	서울 서대문	서대문구 증가로 243
	갈 릴 리 교 회	김순현 목사	호남 여수광양	여수시 돌산읍 계동해안길 70
	인 자 교 회	이동원 목사	서울남 양천	양천구 월정로38길 8-1
2019	빈들공동체교회	남재영 목사	남부 대전중부	대전시 중구 대종로 460
	예 수 향 교 회	박영훈 목사	경기 평택동	평택시 장안외길 83
	전 농 교 회	이광섭 목사	서울 동대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12길 99
	화 정 교 회	박인환 목사	경기 안산	안산시 단원구 꽃우물길 112-14
2020	산 들 교 회	노재화 목사	삼남 진주	함양군 함양읍 함양남서로 1177번길
	의 성 서 문 교 회	이 혁 목사	삼남 경북북	의선군 의성읍 안평의성로 1193
	자 연 드 림 교 회	김신형 목사	충청 예산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160번길 6
	평 동 교 회	김종윤 목사	서울 종로	종로구 송월길 140
2021	빛 마 을 교 회	이희진 목사	삼남 경북북	영주시 문수면 무섬로 5
	일 벗 교 회	서정훈 목사	중부 강화북	양사면 배우개길69번길 27-22
	해 남 새 롬 교 회	이호군 목사	호남 전남서	해남군 해남읍 서림길5
2022	산 성 교 회	윤원영 목사	중부 일산동	일산동구 일산로 360
	샘 터 교 회	안중덕 목사	삼남 부산남	부산시 남구 조각공원로27번길 12
	세 신 교 회	김종구 목사	서울남 양천	양천구 목동동로 75
	사 남 교 회	이현우 목사	삼남 한려	사천시 사남면 진삼로 1092-20
	나 우 리 교 회	염동철 목사	서울남 강남동	강남구 언주로30길 27
	월 곡 교 회	최복규 목사	서울 성북	성북구 화랑로9길 13
2023	평화를만드는교회	장성준 목사	서울 중구용산	중구 동호로17길 85-6
	안 골 교 회	김진희 목사	충청 예산	예산군 신양면 무봉1길 68-8
2024	괴 산 중 앙 교 회	홍일기 목사	충북 괴산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15-2
	산 돌 교 회	황창진 목사	경기 동탄	화성시 동탄대로21가길 4-2(영천동)
	산 유 리 교 회	이병길 목사	중앙 가평	가평군 가평읍 호반로 1833
	색 동 교 회	송병구 목사	중부 군포	의왕시 안양판교로 240, 2~3층(청계동, 청도빌딩)

제41회 기독교대한감리회 환경선교주일 자료집

발행일 2024년 6월 3일

발행인 태동화 (선교국 총무)

편집집 선교국 환경선교위원회

편집인 이승현 (선교국 사회농어촌환경부장)

발행처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149 감리회관 16층

전화 02-399-4340

디자인 디자인통